

자조금 제도란 무엇인가? (上)



최상백
(본회 부회장)

1. 머리말

지난 88년도에는 쇠고기 및 닭고기 가격의 급등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여 다행스럽게도 돼지고기 가격이 어느정도 안정된 한 해였었다.

또한, 대일본 돈육 수출량도 8000 톤 이상 수출한 한 해였으며, 육가공 원료육도 60만두 이상 소비되어 그럭저럭 다행스럽게 지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닥아 온 89년만은 반드시 밝은 전망만은 아니다.

'88년도 양돈 배합사료는 350 만톤 이상이 생산되어 '87년보다 무려 21%가 증가되었으며, 일본 수출에 대한 전망도 '89년초부터 일본 정부의 강력한(한국 돈육 상품) 항균·항생물질 검사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을 위시한 선진 제국의 축산물에 대한 수입개방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더 많은 쇠고기 및 돼지고기 통조림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양돈인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 매어 가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양돈인들이 미래에 대한 확고한 사업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견고한 결속력으로 돈육 소비 확대를 통한 돈육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자조금제도의 정착이 중요한 것으로 귀결되어 이에 자조금제도의 중요성과 정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자조금 제도의 목적 과 성격

우리나라의 양돈업은 60년대에 부산물을 시작으로 출발하여 70년대 정부의 강력한 축산진흥정책과 더불어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온 결과 자급농의 규모에서 점차 전문적인 상업농의 형태로 변모하여 가고 있으며, 연간 돈육의 국내 시장만도 1조원을 상회하는 매출고로 국민 총생산 부문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면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외적 요인도 증가하듯이 양돈업도 이제는 과거와 같이 안일하게 정부의 보호상태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생산측면에서는 사양기술의 개발, 위생, 육종 등의 개량에 의하여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지만 돈육의 소비확대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이 생산만 해 놓으면 당연히 먹어준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관해 왔다.

최근에 일부 양돈인들 사이에 소비를 떠난 생산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자각이 때늦은 감은 있지만 서서히 대두되고 있어 돈육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소비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소지가 높아지고 있어 무척 다행

스러운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육류 생산자는 농장안의 개별적 생산경영은 자기 이익과 직결됨으로 철저한 계획과 관리를 하고 있으나, 농장밖의 돈육소비촉진 등의 산업적 제반 문제에 대하여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양돈인들은 스스로 양돈산업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여 양돈산업의 발전과 양돈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세 정립을 할 시점에 와 있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강한 조직력과 공동 활동을 통하여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것만이 주인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따라서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적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확보이며, 이 경우 자금이란 마땅히 양돈인 모두가 참여하고, 부담이 아주 적으며, 수금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임승차자가 없이 모두 공평하게 자금을 각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평한 자금분배를 위하여서도 사업량의 규모(사육두수)에 따라 자금을 각출하는 것이 합당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식이 이른바 자조금 제도인 것이다.

고도의 산업사회에서는 농업은 타산업에 비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두면 사양 산업이

되고 만다. 따라서 농업은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스스로 살아남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自救를 위한 활동에 바로 자조금이 필요한 것이다. 그 누가 우리 양돈인들을 위하여 희생을 할 것인가? 바로 그 희생의 댓가는 항상 우리 양돈인들임을 인지하고 우리의 살 길은 우리가 지키는 양돈인들의 주인 의식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 와 있음을 필자는 강렬하게 느끼고 있다.

전술한바와 같이 자조금은 우리 양돈인들의 공동이익 즉, 집단의 한 구성원 또는 일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양돈산업 전체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사용되는 자금이며, 이 자금은 주로 다음과 같이 사용 목적이 될 것이다.

첫째 - 돈육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현재 본회에서는 홍보분담금이라는 형식으로 회원들로부터 수납하여 돈육소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 재원이 미비하여 돈육요리 경연대회 및 기타 전시회 등을 통하여 돈육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우리가 뜻하는 바와 같은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돈육소비 활동은 미진한 상태이며, 본회 회원 이외의

다수의 양돈인들은 무임승차하여 자신들이 생산한 돼지를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본회 회원 이외의 다수의 양돈인들로부터 다액의 홍보분담금이 지출된다면, 강력한 돈육소비 활동을 전개하여 타 식품 혹은 타 육류보다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여 쇠고기나 기타 육류의 지향적인 식생활 패턴에서 저렴한 돈육으로 전환케 하여 영양가 높은 돈육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 영양교육활동 전개

전파 및 영상매체를 통하여 주로 영양사 등 건강전문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영양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돈육의 영양가와 효능을 일반에게 인지도록 교육을 시킨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더욱 더 돈육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중학교 이상부터 조리법 등을 순회 강의하여 돈육소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세째 - 소비자의 여론 조사

자조금은 돈육에 대한 소비자의 여러가지 의견을 조사하는 데

쓰여진다.

한가지 예로,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는 하절기에 잘 먹어야 본전이라는 등 및 한약과 돼지고기는 상극이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돈육소비 촉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한방의 전문가들과 상호 협의하여 그릇된 사고를 수정토록 하여 돼지고기 소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여론을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돈육은 열량이 많고 콜레스테롤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지배적 의견을 찾아 그외 적절한 홍보한 지상을 통한 홍보효과 결과 커다란 소득을 얻은 경험이 있다.

네째 - 외식산업에 돼지고기 소비촉진운동 전개

미국인들은 현재 식비에 사용하는 경비의 40% 정도를 외식에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외식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도 이 추세는 지속될 것 이므로 돼지고기 소비확대와 크게 관계가 있다.

그래서 슈퍼마켓 경영자나 종업원 또는 레스토랑의 조리사들

표 1. 기존 시행국의 자조금 부과수준

국명	산업	부과 수준	비고
미국	우육	○ 생산자부과금: 1\$ / 두 ○ 수입업자 부과금: 생산 - 1\$ / 두 우육 및 우육제품 - 20~38¢ / 1b	
	낙농	○ 15¢ / cwt (45.36kg) (1985년 유가 12.75\$ / cwt 라 할 때 원유대의 1.2%)	
	양돈	○ 생산자부과금: 시장가격의 0.25% ○ 수입업자부과금: 최초부과금이 0.0016 ~ 0.0024¢ / 1b	
	계란	○ 1976시행령: 5¢ / case ○ 현재는 2¢ / case	1 case는 360개
	옥수수	○ ¼¢ / 1 bushel (판매액의 0.1%)	
덴마크	대두	0.5~2¢ / 1bushel 대부분 1¢ (판매액의 0.2%)	
	양돈	○ 1985. 3 이후 Levy 90kg이하: 10 Dkr / 두 (0.8%) 90kg이상: 25 Dkr / 두 (2.0%)	1985가격: 13.62 Dkr/kg
스위스	낙농	○ 조합이 광고비용으로 0.0035프랑/kg 공제 (1982. 6. 원유기준가격을 0.82 프랑/kg이라 할 때 유대의 0.43%)	
E C	낙농	○ 2%	공동책임부과금 (Co-responsibility Levy)

자료제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조금 제도에 관한 연구)

을 대상으로 새로운 돈육소비에 대한 소비처를 발굴하여야 한다.

동시에 외식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살코기가 많고 영양가가 높은 오늘날의 돈육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근래에는 즉석식품(fast

food)의 한 메뉴로 돈육을 등장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쇠고기와 닭고기가 이미 즉석식품의 대종을 이루는 육류인 점을 감안하여 돼지고기도 중요한 즉석식품의 한 메뉴로 등장시키기 위하여서도 자조금이 활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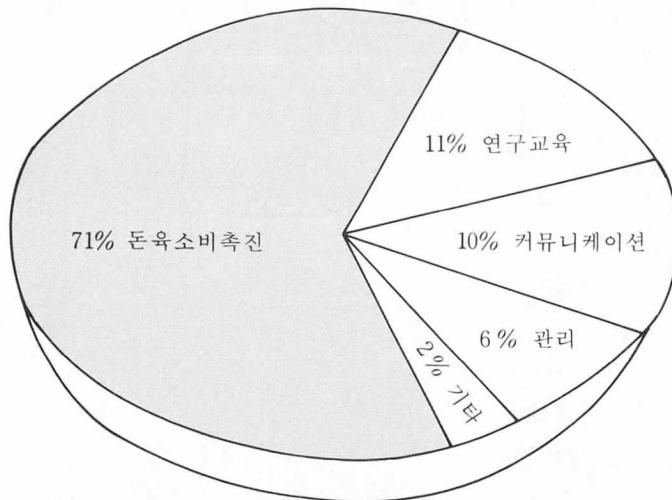


그림 1. 미국 양돈부문 자조금 사용내역

다섯째-돼지고기 가격의 안정도모

초창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뒤 따르겠지만 자조금액이 커질수록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이 확보되어 수매·비축하여 양돈인들이 생산한 돼지가격이 안정되어 평생의 사업으로서 누구나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정부가 돼지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시에만 일시적으로 수매 비축하여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시에 방출하여 돼지고기 수급과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나, 정부측

에서는 양돈산업보다 항상 더욱 중요한 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돈인들은 항상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여섯째-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사업

양돈가의 이익은 시장가격과 생산비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므로 자조금의 일부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경영 합리화에 필요한 연구 개발비로도 할애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번식개선, 자돈 사양관리, 이유방법, 일반적 질

병관리, 정화시설 등의 시설개선 방법, 스트레스 감소대책, 영양 및 사료의 이용과 농장 개선에 관한 총괄적인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행물 또는 기관지를 통하여 우리 양돈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사업은 당장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양돈인들에게는 안정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견된다.

앞으로는 생산자 모두가 자조금에 의한 연구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음호에 계속)